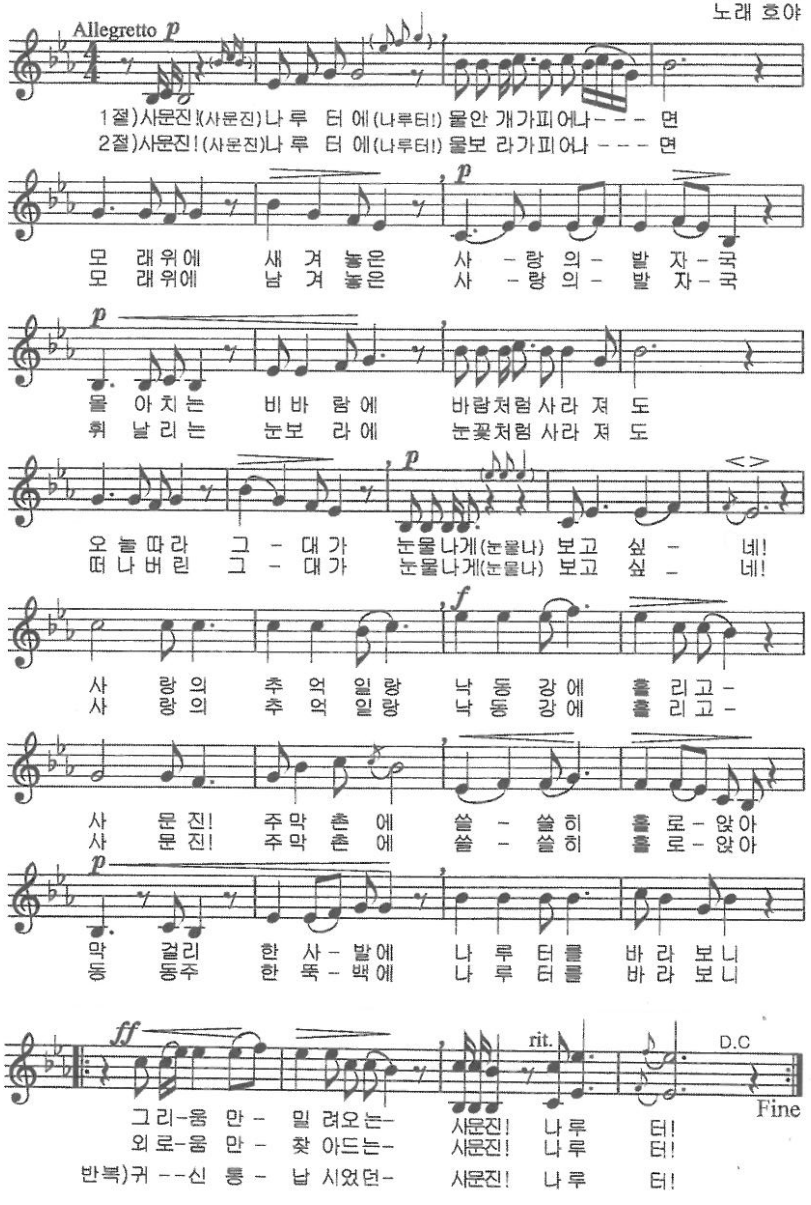
사문진! 나루터!

(화원 유원지)

작사 호야
작곡 호야
노래 호야



★사문진! 나루터!

~호야 작사 · 작곡 · 노래~

1절) 사문진! 나루터에 물안개가 피어나---면
모래위에 새겨놓은 사-랑의- 발 자-국!
몰아치는 비바람에 바람처럼 사라져도
오늘따라 그-대가 눈물 나게 보고 싶-네!
사랑의 추억일랑 낙동강에 흘리고-
사문진! 주막 촌에 쓸-쓸히 홀로- 앉아
막걸리 한 사-발에 나루터를 바라보니
그리-움만- 밀려오는- 사문진! 나루터!

2절) 사문진! 나루터에 물보라가 피어나---면
모래 위에 남겨놓은 사-랑의 발 자-국!
휘날리는 눈보라에 눈꽃처럼 사라져도
떠나버린 그-대가 눈물 나게 보고 싶-네!
사랑의 추억일랑 낙동강에 흘리고-
사문진! 주막 촌에 쓸-쓸히 홀로- 앉아
동동주 한 뚝-백에 나루터를 바라보니
외로-움만- 찾아드는- 사문진! 나루터!

반복) 귀--신 통- 납시었던- 사문진! 나루터!

※ 사문진! 나루터!(화원 유원지)
우리나라 최초(1900년 3월 26일)로 귀신 통(피아노)이 들여왔던 나루터로, 매년 피아노 100대를 놓고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는 곳입니다.